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 안되면 한국당 패싱”

민주·바른미래 “상임위 가동 준비·단독 소집 실행” 최후통첩 한국당, 추경 위한 경제전문회 요구...여야 협상 난항 거듭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판 변수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제실정 전문회’ 개최 요구,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요구 등이 협상의 돌발 변수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주부터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한다는 목표 아래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자유한국당과의 막판

물밑 조율에 나섰다. 일단 최대 난제였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선 절충점을 찾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따지기 위한 경제실정 전문회를 한국당이 요구하면서 협상이 꼬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경제전문회 요구에 대해 “협상 의제로 언급 자체를 안하고 있다”면서 “그게 이뤄지면 긴급 추경을 위한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또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다루는 두 특위를 연장하는 대신 정의당 몫인 정계특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의 6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라는 요구에 직면한 우리는 마냥 한국당을 기다릴 수 없다”며 “다음 주에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가동할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주를 협상 마지막 선으로 보고 한국당에 ‘최후통첩’을 한 모양새다.

반면 한국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 경제전문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은 경제 약화의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안 파악에 더해 추경 필요성을 따지려면 전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우리 나 원내대표는 “정약대가 야당을 조동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며 국회 파행을 책임이 여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약대가 최근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

환제’ 국민정원 답변을 하면서 국회 파행의 야당 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합의 불발 시 국회 단독소집을 포함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을 마지막 선으로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단독소집을 포함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찾아 6월 국회 가동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임종석 ‘종로’ 이사

‘정치 1번지’ 정세균과 교통정리 관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함에 따라 여론의 종로 지역구 후보 ‘교통정리’에 관심이 쏠린다. 임 전 실장의 주소지 이전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전 실장 측에서는 종로에 출마 의사가 없지 않다면 조기에 지역구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눈치만 보고 있다가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지난 달 종로 지역구 현역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내년 총선 출마여부에 대해 “제가 잘 모시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정 전 의장의 양보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임 전 실장 측 관계자는 “결국 정 전 의장의 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종로 출마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은평구에 계속 머무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지만 임 전 실장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 전 의장 측에서는 내년 총선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놓고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임 전 실장의 움직임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정 전 의장 측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다”면서 “종로구민의 의견과 당의 의견, 상대편 선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정 전 의장의 결정과 함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여부 등 대선 대진표를 큰 틀에서 검토한 뒤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종로에 출마할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황 대표가 출마할 경우, 이낙연 총리를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직접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당정, 이·통장 처우개선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月 30만원

당정 15년만에 인상... “법적 근거 마련 책임감 독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을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이·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에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수당 인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까지 지자체에 통보한다.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동’과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하토야마 전 총리 “천황 거론은 실례”... “공감”

문화상 국회의장은 일본의 반발을 샀던 자신의 ‘일왕 사죄’ 발언과 관련해 13일 일본인들에게 사죄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해당 발언에 대해 “(그 발언으로) 마음을 상한 분들에게 미안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문 의장의 해당 발언을 두고 “한국인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지만, 일본인들은 천황까지 거론한 건 실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고, 문 의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

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2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나 일왕의 진정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일본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문 의장이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의장 측은 이번 사과에 대해 “문 의장이 한국의 입장이 있고 일본은 일본의 입장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마음이 상했다면 미안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의당 당권 ‘심상정 vs 양경규’

19~20일 후보 등록... 7월 8~13일 당원 투표

정의당의 차기 당권경쟁이 심상정 의원과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심 의원과 양 전 부위원장은 13일 오전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심 의원은 “당 대표가 되어 총선 승리로 집권의 길을 열겠다”며 “당 역량을 총화해 30년 낡은 기득권 양당정치 시대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3선인 심 의원은 정의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정의당 후보로 지난 2017년 대선에 출마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양 전 부위원장은 “당 운영 방식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소수의 유력 정치인이 아닌 당원 중심의 소통하는 리더십을 만들어 가겠다”며 심 의원에 도전장을 냈다.

양 전 부위원장은 공공연한 공동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전당 당 대표와 부대표,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기 위한 선거 공고를 했으며, 오는 19~20일 후보등록을 받은 뒤 내달 8~13일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정의당은 투표 마감일인 13일 오후 6시 선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관훈클럽 토론 19일 이인영·20일 나경원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초청해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 날인 20일 오전 10시에 각각 토론회 초청자로 참석한다. 장소는 모두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이다.

관훈클럽 소속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두 원내대표를 상대로 패스트트랙-선거법-추가경정 예산을 둘러싼 국회 파행, 북핵 해결을 위한 4강 외교 방안, 노사 문제와 집값 등 경제정책, 이념 갈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각각 질문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원도군 약산면 독암리 청정바닷가 접 산 1377㎡ 분할가능 1억3천
- 화순 남면 유마리 유마사 마을 1021㎡ 전망 좋은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원도군 완도읍 망서리 도로접 산 자연녹지 3306㎡ 교환가능 8천만원
-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입구 땅 1537㎡ 식당 82㎡ 2억5천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허용 1억5백
- 광안구 본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차량진입가 1억6천
- 광안구 쌍암동 대항빌딩 중의 2층 25㎡ 과일즙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순천시 낙안면속마을 땅 2180㎡ 팬션3동 317㎡ 교환가능 8억
- 함평군 해보면 문장 땅 919㎡ 건평 1207㎡ 원룸 30. 지하공실 17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충장로 47㎡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뒤로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산 97404㎡ 은행 5억3천 기타 5천 매도 5천만원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33억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3563㎡ 팬션2동·식당 건평 700㎡ 은행 3억 매도 6억5천
- 무안군 윤남면 바다인접 땅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남평읍 드들강 모텔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적합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임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집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정완벽 팬션좋은 7억2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임야 단독섬

▶ 바로합니다
▶ 지분물건 환영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윤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660㎡, 건평: 83㎡, 매매가: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